

여전히 물음표지만 이 길 계속 가겠다

시 **신윤주**
올해는 무척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일 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안도했고, 시를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에 감사했습니다. 시가 왜 저를 찾아왔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를 쓸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용기 내어 검색창에 시 창작 모임을 검색했던 그 날과 부랴부랴 자작시를 들고 찾았던 다음날의 합평 자리처럼 시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이고 물음표입니다.
시는 제 삶으로부터 가장 멀리 가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도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도피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되돌아오는 길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고 나를 둘러싼 세계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수께끼 같던 세계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가장 가까게 다가서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힘내서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격려해주신 허영선, 문태준 두 심사위원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쓰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저에게 시를 가르쳐주신 최금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제 안에 시라는 씨앗을 심어주신 제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김옥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읽은 시의 모든 시인님, 그리고 저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들, 친구들 사랑합니다. '시와공상' 식구들, 민주쟁, 민혜쟁 고맙습니다. '시우서점'의 두 시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를 읽고 쓰는 우정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항상 지지해주는 우리 김작가 사랑합니다. 마지막으 할머니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이금옥 님, 당신이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1986년 제주 출생 ▷제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동시에서 시조로, 드디어 문이 열렸다

시조 **김규학**
나는 신춘문에 한이 맺힌 사람이다. 나에게 신춘문예란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것이었다. 1997년 노랫말을 쓰러다 시에 입문하게 되었고, 이듬해부터 자유시라는 무딘 도끼로 10여 년을 두드렸지만 그 성은 좀처럼 함락되지 않았다. 동시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고 또다시 도전해서 본심에 일곱 번을 올렸지만 열릴 듯 열릴 듯 성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이런 일도 있었다. 2013년 12월 23일 낮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모 신문사 문화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그녀는 이번 신춘문예에 응모한 적 있으나 다른 신문사에 중복 투고하지 않았으나 인터넷 매체 같은 곳에 발표한 적 없느냐 혹시 표절한 것은 아니냐며 수사관처럼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다. 나에게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며 패제를 부르는데 김민수가 본명이 맞느냐 다그쳐 물었고, 김민수는 아들이고 저는 그의 아버지가 시를 쓴 김규학이라는 사람이

라고 했더니 잠시만요 하며 그들은 전화를 끊었다. 10여 분 뒤 다시 전화가 와서 아르코 창작 기금도 받았고 동시집도 내셨네요? 네…….
그렇게 신춘문에 당선은 또다시 루비콘 강을 건너고 말았다. 그날 이후로 신춘문예와는 아주 담을 쌓고 살다가 작년 겨울에 시조를 쓰게 되었고, 두 번째로 투고한 작품이 올해 당선이라는 낭보로 돌아온 것이다. 제 허접한 시에 깃발을 꽂아 주시고, 이 생애에서의 한을 풀어주시는 두 분 심사위원님과 한라일보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59년 경북 안동 출생 ▷2009년 아르코 창작기금 수혜 ▷2010년 천강문학상 수상하며 작품 활동 ▷불교신문문학상 수상, 황금펜야동문학상 수상 ▷동시집 '털실뭉치', '방귀 튀기 좋은 계절', '서로가 좋은지'



비로소 소설 쓰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소설 **차영일**
차씨 성을 가진 아이는 불씨가 남은 아궁이에 발을 빠트렸다. 엄씨 성의 아이 엄마는 사흘 내내 우는 아이를 안고 병원에 다녔다. 그는 후유증으로 단지 다리 한쪽이 짧아져서 기을 어진 세상을 살았을 뿐이다. 심씨 성을 가진 아이는 세 살 때 경기를 했다. 공씨 성의 아이 엄마는 고칠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화색이 되었지만 아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후유증으로 단지 말하는 게 조금 힘들었을 뿐이다. 그들이 겪은 차별과 편견을 보면서 나는 세상에 나오지 말아야 할 사람은 아니었을까, 생각할 때마다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다. 정신과 영혼이 너무도 멀정해서 오허려 세상을 헤치고 약점을 찾아내어 고통을 치르던 그들에 대한 내 결심을 다스림 새긴다. 지키지 못한 아버지와 지켜야 하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문영 선생님은 소설을 가능하게 한 출발점이었다. 조원규 교수님은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다. 하성란 선생님은 고독해지는 법과 쓰는 힘을 가르쳐주셨다. 강영숙 선생님을 통해

문학의 힘을 믿었다. 암창석 선생님은 시간을 건드는 소설을 쓰는 단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셨다. 심사위원분께 겸손함을 약속드립니다. 고독한 글쓰기와 난계창작반 친구들, 소설을 살아내면서 삶을 얻었다. 얼마 전 '고독한 글쓰기'를 떠난 전수현의 소설들을 기억하겠다. 택수형, 덕영형, 재형, 이제 당신들 차례예요. 낙향했을 때 장생포로 오게 한 울산남구문화원 심영보 사무국장님과 선하다선한 문화원 직원들과 작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생 부부와 조카 민서와 도현. 친가와 외가 식구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설 쓰는 시간이 시작됐다고 말하겠다. 친구와 선배에게 무슨 일들로 시간을 보냈는지 내용증명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전한다.
▷1973년 울산 출생 ▷추계예술대학원 영상사나리오학과 석사 수료 ▷울산남구문화원 장생포 아드스테이 입주작가



상상력의 탄탄한 근력과 섬세한 서정

심사평
한라일보 신춘문에 본심에 오른 시 작품들을 차근차근 읽었다. 서정적인 작품들이 다수 있었고, 고유한 제주 체험에 기초해 창작한 작품들도 여러 편 있었다.
한 편의, 새로운 시의 탄생은 하나의, 초유의 관점의 탄생일 것이므로, 한 편 한 편에 과연 시적인, 유의미한, 최초의 발견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 생각의 단순한 열거에서 벗어나 그 생각들이 유기적으로 상관하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폈다.
마지막까지 논의한 작품은 '살구 나무', '감자꽃', '그리고 '도서관'이었다. '살구나무'는 무위(無爲)를 노래한 작품이었다. 살구나무의 순연한 생명 운동을 번거로운 잡사(雜事)에 시달리는 사람의 형편에 대조해서 바라본 작품이었다. 함께 보내온 작품들이 이 작품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감자꽃'은 제주 4·3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감자가 자라는 땅속 어둠의 공간을 곁잡신한 공간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이 공간이 "검은 봉지"의 공간으로 갑자기 전환되는 대목은 자연스럽지가 않았다.

고심 끝에 시 '도서관'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 시는 해역(海域)을 책 혹은 도서관의 공간에 견준 작품이었다. 바다의 파도와 해초, 해안선 등을 한 권의 책의 표지와 책 속에 담긴 서사로 치환했다. 상공과 하강, 평면적인 것과 입체적인 것의 경계를 내내 활발하게 허무는 점이 신선했다. 첫머리에서 끝자락에 이르도록 산문시 시행을 끌고 가는 상상력의 탄탄한 근력뿐만 아니라 풍경을 드러내는 섬세하고 서정적인 화자의 목소리가 돋보였다. 그리고 함께 응모한 작품들 전편에서 유니크한 시적 화자를 만날 수 있었던 점도 새로운 신인의 출현을 한껏 기대하게 했다. 앞으로 서두르지 않고, 심지어 굳게 자신만의 시세계를 열어 나가길 바란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



서정·서사 조화로 시대 한 단면 구체화

심사평
예심을 거쳐 본선에 올라온 작품들 대부분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시대적 체험과 아픔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강현수의 '아버지의 삶', 김경애의 '달의 화법', 장수남의 '25시편의집', 오은기의 '가사리', 김규학의 '폐교' 등이 눈에 띄었다. 이들 한 편 한 편의 작품에서는 시대 감각에 맞는 소재들과 시어 선택 등이 이미 시조시인의 바탕을 갖추고 있었다. 더구나 입과 코가 가려진 그들 마스크 위로 저마다 촉망되는 눈빛들이 반짝반짝 감지되기에 충분한 내용들이어서 기뻐다.
그 맨 끝자리에 김규학의 '폐교'가 또렷한 색채를 띠며 다가왔다. 서정과 서사가 알맞게 조화를 이루면서, 시대의 한 단면을 시조라는 장르 속에 구체화시켜놓고 있었다.
이 작품은 "긫은 일 도맡아 하던 손이 아버지", "감버섯 경결한 학교", "밤사이 떠나버릴 것 같은 프라타스 나무의 까치둥지" 그리고 학교 건물 전체를 "친친 감아 주저앉히"는 담쟁이의 형상 등을 단순한 나열의 단계를 뛰어넘어 초, 중, 종장의 유기적 관계를 완벽하게 이어놓고 있다. 거기에다, 시조란 관찰해야 할

외적 대상과 드러내야 할 내적풍경을 시대상황에 알맞게 적용시키는 일이라 했을 때, 시인이 갖추어야 할 시력, 어휘력, 상상력은 물론 그 어떤 서사적 울림과 내용 전개가 읽는 이에게 긴장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었다. 결국 우리 심사위원 두 사람은 체험과 시대인식에 바탕을 둔 김규학의 작품 '폐교' 앞에 당선의 꽃다발을 놓아드리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시인이 시를 쓰는 목적은 곧바로 삶의 목적과 같다. '목적'이란 말이 '목표'라는 말에 지배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시조시인들은 좀 더 과감히 사회적 체온기 역할을 해야 할 당위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신춘문예의 문을 두드린 응모자들과 함께 마스크 벗은 얼굴로 시조광장에서 활짝 편 얼굴로 인사 나눌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거칠지만 열정적 문제제기 강점으로

심사평
본심에 올라온 11편의 소설을 읽고서 우리는 격정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에피소드의 나열, 결도는 사연, 피상적 사건 전개 등의 문제들을 지닌 작품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당선작을 낼 수 없다는 데 우선 합의했다. 서너 편을 놓고 어떤 작품을 가작으로 내세울지를 고민했다. 그런데 계층에는 중복투고나 기발표의 문제를 안고 있어서 제외시켜야 할 작품도 있었다. 결국 두 작품이 남았다.
한승주의 '여자아이'는 잘 읽히는 소설이다. 60대 외래교수 남자와 20대 대학원생 여자의 만남을 그렸는데 상당히 감각적이고 세련된 문장을 구사하며 안정된 호흡으로 스토리를 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두 인물이 평면적인 데다가 그들의 관계가 인이하게 다뤄졌다. 특히 남자가 17년 후에 그 여자를 떠올리면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다고 추억하는 결말의 상황은 꽤 실망스러운 설정이었다.
차영일의 '떠도는 도시'는 '여자아이'와는 상반된 경향의 작품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문장이 더러 보였으며, 스토리가 산만하게 전개된다는 느낌도 있었다. 사체업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써야 할 지경에 이른 가장의 위기 상

황이라는 익숙한 내용을 다루면서도 그것에 대해 그다지 예리하게 파고들지 못했다. 아버지와 딸들 원인이 피상적으로 제시된 점도 결함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주인공의 욕망 추구와 좌절의 과정, 극도의 초라함에 처한 한계상황의 진득한 묘사, 내면적 갈등과 번민이 집요한 포착 등은 주목할 만했다. 거칠고 투박한 면은 있지만 진지한 현실탐구와 열정적 문제제기가 강점이다. 더욱 길고 뉘는다면 좋은 작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가작으로 뽑는다.
심사 과정에서 안타까웠던 점은 신인다운 पै가이 돋보이는 작품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기사감이 있는 상투적인 접근으로서 이 세상과 대화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과감하고 पै가이 넘치는, 그러면서도 진지한 성찰을 견지한 작품이 절실히 요구된다.



2021 태양광 보조사업 설치희망자 예비모집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단독 주택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까지 지원
- '20년 기준 공사비의 50% 지원
- 공동주택 지원가능
- 타운하우스 등 단체설치 특별우대

상가 건물

- 사무실/식당/펜션/공장/병원/학원
- 설치용량 50kW까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적용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의 약 50~55% 지원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5전담기업 제주시 노영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